

시로 마음을 여는, 시속에서 희망을 찾는 <세상의 모든 시학(詩學)> 강좌가
2015년 학기중 매월 4주차 금요일 오후 3시, 제2도서관 1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립니다.

세상의 모든 시학

우리는 시대와 지역에 매이지 않는
시학의 보편성을 추구하되
지금-여기의 역사성 또한 잊지 않습니다.
또한,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한 상상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강좌 시간 학기중 매월 4주차 금요일 오후 3~5시
강좌 장소 부산대학교 제2도서관 1층 오디토리움
참가 대상 부산대학교 구성원 누구나 가능

- 제1강 3. 27 (금) 김종기(부산대 불어교육과)
보들레르의 <악의 꽃> 과 현대시
- 제2강 4. 24 (금) 이상금(부산대 독어교육과)
에른스트 안들의 구체시와 독일의 구체시학
- 제3강 5. 22 (금) 이진오(부산대 예술문화영상학과)
선시(禪詩) : 시로 만나는 명상과 깨침의 세계
- 제4강 9. 25 (금) 김혜영(부산대 교양교육원)
엘리어트와 <알프레드 프루프락의 연가>의 시적 기법
- 제5강 10. 23 (금) 김임숙(부산대 일어일문학과)
17자의 정형시-하이카이(俳諧)의 세계
- 제6강 11. 27 (금) 김승룡(부산대 한문학과)
두보의 <곡강>과 마음 읽기

이 강좌는 부산대학교 교수님들의 재능기부와 도서관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이 지면은 향후 도서관 발전기금을 출연한 개인이나 기관을 위한 광고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고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기획홍보팀 담당자(051-510-1810)에게 문의 바랍니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ewsletter

효원 도서관

2015. 5. 28. Vol. 33



똑똑,
문을 열다

COVER STORY

푸르른 5월,

책을 열면
하늘이 펼쳐지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꽃이 피어납니다.

책과 함께
당신의 봄을 누리보세요.

효원 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ewsletter **도서관소식지**

CONTENTS

- 04 캠퍼스와 도서관의 역사 개혁과 변화의 중심에 서다
- 08 세계의 대학도서관 3개의 스페인 보물
- 10 교수의 서재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서재
- 12 아름다운 인터뷰 전자자료 어디까지 알고있니?
- 14 도서관을 열어가는 사람들 기획홍보팀
- 16 통계로 보는 도서관 단과대학별 도서 대출 현황을 한눈에!
- 18 즐기는 책세상 어른을 위한 동화
- 20 문화공감 원작이 있는 영화, 원작 vs 영화, 당신의 선택은?
도서관 모바일앱(APP) 출시
- 22 시선집중
- 23 도서관 후원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김기혁 발행일 2015. 5. 28.
 편집 김미선, 박지영, 손성동, 최민영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 051-510-1810 팩스 051-513-9733 이메일 whitemy37@pusan.ac.kr
 홈페이지 <http://lib.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051-248-1513

<효원 in 도서관>은 도서관 블로그(<http://lib.pusan.ac.kr/pnublog>)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개혁과 변화의 중심에 서다



부산대학교도서관은 1946년 부산대학교 개교와 함께 설립되어, 예순 여덟 해가 흐르는 세월 동안 효원인 곁에서 묵묵히 성장해왔다. 우리 도서관이 걸어온 시간들을 되짚어 보는 '캠퍼스와 도서관의 역사'를 기획·연재하여 도서관의 소중한 기록들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 본문은 2009년 발간한 『부산대학교 도서관사 1946~2008』에서 주로 발췌·작성하였다.

1980. 9. ~ 1994. 8.

1980년대에는 현 제2도서관인 중앙도서관을 개관하면서 깨끗하고 조용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고 새로운 도서관 운영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교내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대학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관리 중심의 도서관에서 이용 중심의 도서관으로 변화를 시도하였고, 개가제 실시, 자료실 연장개관, 출입제도의 변화 등으로 이용자의 도서관 및 자료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사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원 해외연수, 해외전문가 초청 기술세미나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중앙도서관(현 제2도서관) 개관 (1980.9.9.)

기존 도서관의 3배 크기로 6개의 열람실을 갖추었으며, 개관 당시 좌석 1개당 사용인원은 학생 수 대비 평균 5명 꼴이었다. 기존의 중앙도서관은 '구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되다가, 1984년 과학 분관으로 재개관하였다.

관리 중심의 도서관에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개가제 실시(1988.3.2.)

1988년 3월 2일부터 동양자료실의 장서 13만 5천여 권을 전면 개가제로 운영하였다. 그동안 서고 접근이 자유롭지 못하고 신청한 도서를 대출하기 위해 기다리는 수고를 하여야 했던 이용자들에게 서고의 개방은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변화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인적, 물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폐가제 운영보다 자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개가제로 자료실 운영 방식을 개선한 것은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도서관의 변화된 의지의 표현이었다. 개가제의 실시로 자료실 이용자 수와 대출량이 증가하였으며 도서관 서비스는 한 단계 진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서지서비스의 확대

1988년 당시 도서관에서 컴퓨터가 확보되어 있던 곳이 전산실밖에 없었으므로 전산실에서 정보검색 관련 업무를 제공하고 있었다. DIALOG는 수 백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정보은행으로 전 주제 분야에 걸쳐 정보검색을 제공하는 서비스였으며, Dialcom은 전자사서함으로 해외와의 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한 서비스였다. 이어 1989년 5월부터 KIET-Line 정보검색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1년 4월부터 외국 석박사 학위논문의 초록정보를 담은 CD-ROM인 DAO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후 1991년 서지조사실과 전산실로 이원화되어 제공되던 서지관련 업무를 서지조사실에서 통합 제공하게 되었고 정보검색과 상호대차 및 문헌복사 제공서비스를 하게 되었다.

상호대차 및 문헌복사서비스 제공

1989년부터 타기관과의 협력으로 분교 이용자들에게 비소장자료의 원문 입수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단행본의 경우 BLDSC를 통하여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학위논문이나 저널 아티클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타대학도서관, KINITI(산업기술정보원), BLDSC 등에 의뢰하여 문헌복사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도서관 이용안내

1987년 10월부터 1층 로비 열람목록함 옆에 안내데스크를 마련하여 사서가 순환제로 근무하면서 목록이용법과 도서관 전반에 걸친 이용안내를 하였다. 이는 인포메이션 데스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중앙도서관 개관식



중앙도서관 전경 (1980)



개가제 서고 이용(부대신문 1993.3.2. 6면)



이현우 열람과장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몇가지 소견 (부대신문 1988.10.7. 8면)

도서관 전산화

1980년대 후반,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가 도서관 업무에 도입되었고, 1989년 1월 열람과 소속으로 전산실을 설치하고 담당사서를 배치하여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서관 전산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당시 예산액 약 2,200만원을 투자하여 PC 3대(16Bit), 프린터 2대(24Pin)의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도서관 전산화를 위한 서지DB 구축사업을 시작하였다. 1991년부터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도서관 소장 단행본, 학위논문, 연속간행물의 서지DB 구축작업을 진행하였다. 1992년 워크스테이션(SUN-10) 1대와 9월에 도서관 업무 자동화시스템인 OROM 2000의 편목 모듈을 도입하여 신규 구입 자료에 대한 서지DB를 구축하였다.

목록 검색방법의 변화

소장도서의 DB입력 작업으로 1993년 말에 단행본의 소급입력이 완료되어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찾고자 할 때에는 검색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검색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위하여 카드목록도 함께 볼 수 있도록 비치하여 두었다. 이후 1994년, 대출 반납 시스템도 추가 도입하였다.

부산대학교 도서관 개혁운동 (1987.9.2.~1988.11.22. 약 1년 6개월)

이 운동은 부산대학교 도서관학과 학생회가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와 연대하여 시작한 것으로, 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열망이 분출되어 나오던 시기인 1987년 9월 2일부터 1988년 11월 22일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개혁운동 기간 동안 36편의 대자보와 학교 당국의 답변 자료가 학교 곳곳에 게시되어 도서관 문제에 대한 교내 구성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도서관 내외부에 '대학도서관의 역할'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도서관 장서, 인적구조, 도서관 시설 등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사서들의 자기성찰과 변혁에 대한 의지로 이어져 도서관 업무 전반에 있어서 기술혁신이 일어났으며, 학력신장, 전문성 강화 등 사서들의 자질 향상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자료구입의 직거래, 주제담당사서제 등 새로운 업무개발과 전산화 준비작업, 도서관이원화 작업 계획 등을 수립하여 도서관은 이 시기에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사서의 역량 강화

사서들이 도서관 현장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서진의 목소리를 담은 「도서관소식」지를 1989년부터 발간하였다. 그리고 캐나다 UBC 도서관 직원을 초청하여 '도서관발전기회 세미나'를 가졌고, 미국 뉴욕주 Westchester Library System 관장을 초청하여 2주간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1992년부터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기술축적을 위한 자체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사서들이 도서관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여러 업무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실무를 통해 얻은 노하우와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신축도서관(현 제1도서관) 건립

1980년 9월 중앙도서관을 신축하였으나 7년이 지난 후 건물의 규모와 시설, 장서 수장능력 면에서 포화상태에 이르러 도서관 신축에 대한 요구가 팽배하였다. 그리하여 약 28억원의 예산으로 3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1994년에 건립되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연구진을 대상으로 깊이 있고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도서관에는 연구용 자료를 배치하여 '연구도서관'으로 운영하고, 그 당시 중앙도서관은 교양과 학습용 자료를 비치하고 열람실 이용을 위주로 '학습도서관'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도서관 이원체제를 구상하게 되었다.



도서관 전면적 개혁 시급하다

대학의 심장기능수행에 많은 문제점 가져 학생 교수 개개체, 학사 정서서 체제 원해 시정운일 개신위해 도서관신속 앞당기야

도서관, 보다 내실있는 개혁 요구돼

학생 학교측 적극적 개혁의지 촉구 전자정보 시스템 가입예정등 긍정적

도서관 개혁운동(부대신문 1987. 9. 14. 7면)

도서관 개혁운동(부대신문 1988. 4. 4. 7면)



부산대학교 도서관
도서관 소식지 창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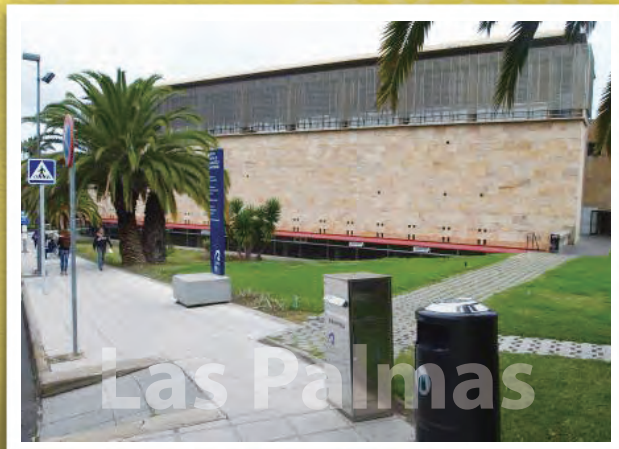
UBC 직원 초청 특별세미나 기념사진

3 개의 스페인 보물

라스팔마스 대학 도서관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도서관
마드리드 자치대학 도서관

도서관 기획홍보팀 최민영

스페인에는 종합대학교와 기타 단과대학, 기술대학 등을 포함하여 총 230여개의 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지난 2월, 선진대학도서관의 서비스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스페인의 대학도서관 3곳을 방문했으며 국내 대학도서관과 다른 느낌의 유럽 도서관의 선진화된 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 있었다.



라스팔마스 대학 도서관

라스팔마스 대학은 스페인 그란카나리아 제도의 최대도시인 라스팔마스에 1989년 설립된 공립종합대학이며, 라스팔마스 대학의 도서관은 도서 66만여 권, 비도서 9만 7천여 종, 연속간행물 7천여 종을 소장하고 있으며, 5개의 캠퍼스에 15개 주제별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중앙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Edificio Central de la Biblioteca Universitaria는 라스팔마스 시내에서 버스로 약 30분 가량 떨어진 산중턱에 위치한 Tafira 캠퍼스 내에 있으며,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 이루어진 현도서관 건물은 1995년 완공되었다.

라스팔마스 대학 도서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바로 도서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Main Reading Room이다. 1층에서 3층까지 하

나의 공간으로 트인 이 열람실은 양쪽 벽면이 모두 서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까지 연결된 서가에는 층별로 각기 다른 주제의 자료가 배열되어 있다. 그 외 DVD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인 Servicios Tecnicos는 우리도서관의 iCOMMONS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간이며, 지역 출판물을 망라적으로 수집한 Seccion de Canarias에서는 라스팔마스 대학이 속해있는 지역인 카나리아제도에 대한 역사,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 대한 자료를 열람 혹은 대출할 수 있다. 주목해서 볼만한 또 하나의 자료실은 Biblioteca de Musicologia로, 라스팔마스 출신의 유명한 작곡가 겸 음악가인 Lothar Siemens Hernandez(1941~)로부터 기증 받은 자료를 모아놓은 일종의 개인문고이다. 2005년에 기증받은 이 자료들은 음악이론 및 음악학 분야에 관련된 7,000여권의 문서 및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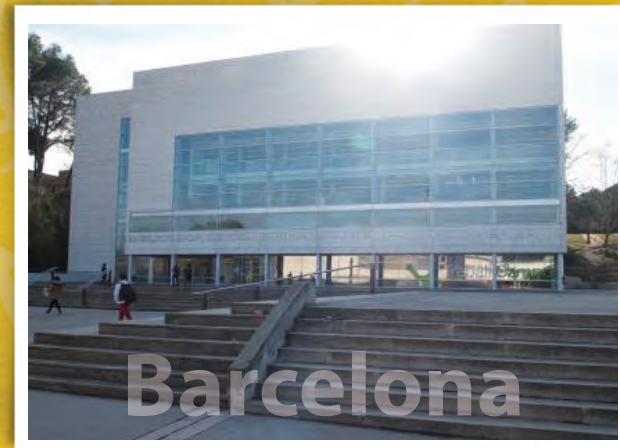
마드리드 자치대학 도서관

마드리드 자치대학은 1968년 설립된 스페인 최고의 국립종합대학으로, 스페인 대학 순위 1위 대학으로 손꼽힌다. 마드리드 자치대학 도서관은 도서 97만여 권, 지도 2만 7천여 종, 전자책 13만 4천여 종, 전자저널

9만여 종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24시간 이용가능한 5천석의 열람공간을 자랑하고 있다. 메인캠퍼스라 할 수 있는 Cantoblanco 캠퍼스에만 14개의 주제별 분관이 있으며, Cantoblanco 캠퍼스는 마드리드 시내에서 근교철도로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한다.

우리가 방문한 과학도서관은 전캠퍼스를 통틀어 도서관 분관 중 가장 규모가 큰 도서관으로, 단과대학의 지원을 받아 2002년에 신축 개관하였다. 소장자료는 크게 화학, 수학, 환경과학, 생화학, 식품과학기술, 생물학, 물리학, 화학공학 및 영양학으로 분류되며, 소장자료 및 이용행태가 전자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열람실이나 자료실에서 온라인자료로 바로 접속가능한 QR코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제별 신착도서 및 저널 등을 자료실 입구에 배치하여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주제별로 청구기호가 찍힌 라벨의 색깔로 주제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어, 연속간행물 과월호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보관을 하되 제본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자료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도서관 내부에는 Cloister 라고 하는 휴게공간이 있는데, 천장이 오픈되어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사서 Teresa Gomez 씨의 설명에 따르자면 계절에 따라서는 각종 새들이 Cloister의 구석에 집을 짓고 생활하기도 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이라고 한다. 이런 휴게공간 외에도 과학도서관은 도서관 내부 계단이나 난간 등에 각종 식물을 배치하여 자칫 삭막할 수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었다.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도서관

바르셀로나 자치대학은 1968년 설립된 스페인 최고의 명문공립대학으로, 2014년 QS World University Rankings에서 스페인 2위 대학으로 선정된 우수대학이다. 바르셀로나 자치대학의 도서관 역시 타대학과 마찬가지로 분관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가 방문한 도서관은

Belleterra 캠퍼스에 있는 'Biblioteca de Comunicacio i Hemeroteca General' 분관으로 바르셀로나 시내에서 기차로 약 50분정도 소요되는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Communication Library는 지하1층 포함 총 6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장자료는 도서 92,100여 권, 연속간행물 10,214종, ebook을 포함한 전자자료 38,983종 등으로 주로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광고, 라디오/텔레비전, 영화, 사진 등에 관련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Communication Library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었는데, 자료실 내에 거동이 불편한 신체장애인을 위한 열람부스를 비롯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열람부스 등이 있어 장애인들도 어렵지 않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도서관에서도 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1층에 7개의 개별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서고는 연속간행물/단행본 등 자료의 형태별로 나누어지며, 보존자료 중에는 19세기 후반의 귀중본도 포함되어 있다. 지하 1층에는 보존서고 외에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룹스터디룸이 8개 있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각종 기기는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의 대학도서관은 첫방문이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자료이용행태의 변화에 따른 빠른 적응과 대처였다. 전자자료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QR코드를 제공하거나, 신착도서 및 신착 간행물의 최신호를 자료실 입구에 배치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쉽게 하고 있었다.

또한 도서관 실내·외 인터리어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여 쾌적한 환경 조성이 눈에 띄었다. 실내·외 짜투리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조각상과 그림 등의 미술품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녹지공간을 구성하고 휴게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공간구성으로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이용자들로 하여금 친숙함을 느낄 수 있게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관 사서의 친절한 태도였다. 방문했던 도서관 3곳 모두 업무 외적으로 요청한 도서관 투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사서들은 2시간에 가까운 시간동안 친절한 태도로 안내를 해주었고, 영어권 국가가 아님에도 기본적인 영어능력을 갖추고 있어 대화에 큰 어려움이 없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대학도서관은 흔히 대학의 심장이라고 말한다. 이번 출장으로, 과연 부산대학교의 심장은 제대로 뛰고 있는지, 더 활발하게 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김상욱 물리교육과 교수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서재

“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이다.

내가 읽은 책이 내 마음이다.

”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이다. 내가 읽은 책이 내 마음이다.” 전에 내가 어딘가 썼던 문장이다. 사실 “내가 먹은 음식이 너 자신이다”라는 영어 속담을 살짝 비틀어 본거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마음도 피폐해지겠지만, 순두부찌개를 먹었다고 상대성이론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음식이 마음이었으면 세상에 수학 못할 사람은 없으리라. 그래서 내가 쓴 것이 더 옳다고 본다. 더구나 나처럼 내성적이고 밖으로 나다니기 싫어하는 사람이 세계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면 그 대부분은 책에서 얻은 것일 수밖에 없다.

나는 음식에 관한 한 가리는 것이 없는 편이지만 책은 편식이 심하다. 읽어야 하는 책을 읽기보다 읽고 싶은 책만 읽기 때문이다. 이런 독서습관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관심도 없는 것을 붙들고 며칠간 그 생각만 하는 것은 내 체질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성격상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읽고 싶었던 책이라도 막상 읽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집어던지고 다음 책으로 향한다. 이걸 내 멘탈이 이상해서도 아니고 성격이 까칠해서도 아니다. 자, 생각해보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책을 읽은들 1주일에 한 권 이상 읽기는 쉽지 않다. 1년에 50권을 넘기기 어렵다는 말이다. 내가 편식하는 책의 장르만 해도 1년에 국내에서 300여 권의 신간이 나온다. 다른 분야의 책이라도 좀 읽으려면 책을 골라 읽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내가 편식하는 책의 장르는 ‘과학’이다. 집의 서재를 둘러봐도 대부분 과학책들이다. 사실 장서 규모만 보면 ‘교수의 서재’ 같은 글을 쓸 만큼 대단한 서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엄청난 다독가는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손에 책이 없으면 불안하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 하는 일이 독서일 뿐이다.

학창시절 나를 사로잡은 책은 블루박스 시리즈라는 다소 조악한 과학문고판 책들이었다. 당시는 교양과학관련 책들을 거의 구할 수 없었기에 일본 것을 그대로 번역한 이런 것도 감지덕지할

지경이었다. 틈만 나면 광화문 교보문고에 나가 과학책들을 뒤적이며 미래의 과학자 꿈을 꾸던 행복한 시절이었다. 이 때 우연히 집어든 가다마 야수히사의 <양자역학의 세계>라는 책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고, 대략 50번은 읽었던 것 같다. 이후 지금까지 양자역학에 대한 교양서적은 나오는 대로 읽었다. 내가 가진 양자역학 책만 원서포함 50 여권 정도 된다. 모두 그 나물에 그 밥이지만, 나는 항상 맛있게 먹는다. 학자로서 내 일생의 연구 주제도 양자역학이다. 사실 <양자역학의 세계>는 지금 보면 정말 조악하기 그 지없는 책이다. 꼭 잘 쓰인 책만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양자역학으로 시작된 과학책의 흥미는 인접 분야로 번져간다. 역시나 블루박스 시리즈의 하나였던 <양자생물학>은 내게 생물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고등학교 시절 생물학은 과학 암기과목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 생명의 근원에 원자, 분자의 물리학이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석사 2년차 때에는 생물물리학으로 전공을 바꿀까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있다. 박사 1년차 때에 뇌 연구하겠다고 전자통신연구소의 신경과학연구팀에 참여한 것도 이런 이유다. 덕분에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신경생물학, 생리학, 생화학 책들을 섭렵할 수 있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만난 것은 이맘때인 것 같다. 이 책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유전자 때문이라니. 이후 이런 종류의 책들을 읽으며 진화론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 익숙해진 것 같다. 닉 레인의 <미토콘드리아>, <생명의 도약>, 린 마굴린스의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보면 그 복잡함과 신비함에 있어 물리학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사실 나는 물리학자지만 통일장이론보다 최초의 생명체나 외계 생명체가 더 궁금하다.

과학책 말고도 내 생각에 큰 영향을 주었던 책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제3의 침팬지>,



리처드 니스벳의 <생각의 지도>다. 사실 <제3의 침팬지>보다 <총균쇠>가 더 유명하지만 나는 <제3의 침팬지>를 먼저 읽었기 때문에 뒤에 읽은 <총균쇠>의 내용이 아주 새롭지는 않았다. 이 책은 인류학이 과학적 방법론과 결합하면 얼마나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생생히 보여준다. 이는 모든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 믿는다. <생각의 지도>는 동서양 문화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독일에 살았던 경험을 뒤집으며 인간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준 책이다.

여기까지 쓰고 보니 학자 냄새를 너무 많이 풍긴 것 같다. 나도 인간이다. 잡지나 소설도 보고 소

일거리 책도 읽는다. 한때 나는 자칭 밀리터리마니아였다. 전쟁에 대한 책이나 자료를 닦치는 대로 모은 적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 SS기갑사단의 역사에 대한 책이라던가, <스탈린그라드 전투>, <과달카날 전투>, 리델하트의 <전략론> 같은 책들 말이다. 교보문고의 전쟁사 코너를 다 꿰뚫고 있던 적도 있다. 지금도 서재의 대여섯 칸이 이런 책들로 가득하다. 지금은 전쟁사에 대한 관심이 시들하지만, 이런 책들로부터 인간 사회의 폭력성이나 역사의 이면에 대해 배웠다면 지나치려나.

원래 소설을 그리 즐겨보는 편은 아니다. TV 드라마도 거의 안 본다. 그래서 내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집사람 지적이기는 하다. 그래도 대학 때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읽고 별교를 방문했던 기억이 난다. 별교가 상상하던 모습과 달라 실망이 컸지만 말이다. 나이 사십을 넘어가며 우주만큼이나 인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당연히 뇌과학에 대한 책들부터 집어 들었지만, 쳐다보지도 않던 철학책들을 뒤적이기 시작했던 이유다. 여기서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것들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원고도 다 썼으니,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와 버트란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나 마저 읽으러 가야겠다.

전자자료 어디까지 알고있니?

2015 전자자료 이용박람회, 그 이후의 이야기

지난 4월 29일~30일 양일간 제2도서관 1층 로비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자자료 이용박람회 (이하 박람회)가 열렸다. 올해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전자자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고 체험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경품 이벤트 당첨자들에게는 학창시절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번 호에서는 박람회에 참여한 학생들과 우리 도서관에 가장 많은 종류의 전자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EBSCO 관계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에게 비춰진 박람회의 모습과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들어보고자 한다.

학생들의 이야기

Q. 평소 전자자료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알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이용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민우 이전에도 도서관에서 전자자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법 조항 관련 검색을 위해 '로앤비'를 활용하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종이책이 익숙했고, 전자자료를 사용할 일이 있어도 도서관 전자자료를 찾기보다 대개 다른 수단을 이용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어떤 전자자료를 제공하는지 세세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성훈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전자자료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도서관에서 필요한 책을 읽거나 대출해 본 경험은 있지만 도서관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대출기한 등 대출관련 정보만을 얻었습니다. 이번 전자자료 이용박람회를 통해 전자자료에 대해 처음 알게 된 후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자료와 기능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Q.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아쉬웠던 점을 한 가지씩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우 박람회의 취지 자체가 좋았습니다. 여러 다양한 전자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실제 보여주고

간단하게나마 사용해보도록 한 것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이러한 전자자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은 물론, 저차점 실제로 전자자료의 존재는 알아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몰라 자주 찾지 않던 사람에게도 전자자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기가 된 유익한 행사였습니다. 크게 아쉬웠던 점은 없습니다. 사소한 것을 들자면, 도중에 짐을 정리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받은 자료를 정리하거나 뭔가 메모한다거나 할 만한 장소가 간단하게 있다면 더 좋을 듯합니다.

또, 행사치고는 활동이 다소 적었다는 점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전자자료를 알리고 사용해보는 목적에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성훈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다양한 업체가 박람회에 참가 해주셨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업체에서 와주셔서 관련 전공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기했던 업체는 북한 관련 전자자료를 소개해 주었던 업체였는데 북한의 법조문을 볼 수 있었고 이쁜 요리, 지역, 기후, 자연, 문학 등 북한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좋았던 점은 박람회가 2일에 걸쳐서 개최된 점입니다. 학교 수업개설 요일 특성상 월요일, 수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수업이 개설되는데 박람회가 2일 동안 개최되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각 업체가 어떤 전자자료를 소

개해주는지 몰랐던 점입니다. 부스나 도서관 담당자 분들께서 나누어주시는 종이에 각 업체가 어떤 전자자료를 소개해주는지 나와있다면 박람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전자자료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박람회에 참여한 이후 전자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달라진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우 'know where'가 향상 되었습니다. e-Book으로 IT분야 책 몇 권을 보았고, 앞으로도 한 번씩 사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또, 실제 학술 자료와 같은 여러 자료가 필요할 때, 박람회에서 소개받은 채널을 떠올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훈 박람회에 참여하기 이전에 전자자료에 대해 알지 못했을 때는 학교 수업 과제를 하거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해 보곤 했는데 전자자료에 대해 알게 된 이상 수업과제 할 때,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자료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학부생이라 전자자료를 이용할 기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다른 학우분들과 논문을 써야하는 대학원생 분들한테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Q. 혹시, 박람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성훈 사실 박람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경품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경품에 당첨될지도 모르니 한 번 참가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친구와 함께 참여했었는데 같이 간 친구만 스탬프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 실망스러웠지만 희망을 품고 둘째 날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도 저는 당첨이 안 되었지만 같은 학과 친구가 당첨되어 스스로 운이 정말 없구나 생각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박람회 이용후기 이벤트에 참가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관계자분으로부터 이용후기 이벤트, 퀴즈 이벤트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다고 들었는데 운 좋게 당첨이 되었고 이렇게 인터뷰도 응할 수 있게 되어서 박람회에 참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Q. 끝으로 이번 박람회 참여를 통해 느꼈던 점과 앞으로 도서관 담당자 및 업체 관계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민우 학교(도서관)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학업에 신경써 주고, 지원해 준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유용하게 활용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장 도서관에 바라는 점은 없습니다. 도서관을 애용하면서, 도서관이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기쁘게 봐왔습니다. 최근엔 도서관 모바일 홈페이지가 변경되고 앱도 생겼더군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모바일 홈페이지가 약간 무거워졌다는 느낌은 듭니다.) 지금처럼 개선할 점이 보이면 꾸준히 개선하고, 구성원의 의견에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 처음에는 경품 때문에 참가했던 박람회였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업체에서 와주셨고 다양한 전자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이러한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몰랐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지만 이렇게 늦게나마 전자자료의 존재를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르는 것이 있거나 과제를 할 일이 있으면 전자자료를 최우선적으로 이용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박람회를 개최해주신 도서관 관계자 분들과 와서 열심히

설명해주신 업체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된다면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전자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체의 이야기

Q.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대학교 박람회에 참여했는데요. 박람회 참여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EBSCO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전자정보 박람회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어서 뜻 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Q. 업체에서는 많은 대학 박람회에 참여할 텐데요 그러면 대학별 상호비교도 되죠?^^ 타 대학과 비교하여 우리 대학 박람회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EBSCO 박람회 행사 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행사가 진행되는 위치와 공간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산대학교 2도서관 로비는 최적의 장소이며, 많은 이용자들이 접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되어, 참석하는 업체들도 좋은 분위기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사 중간에 실제 이용자 이용교육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져서 보다 상세하고 관심이 높은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이용 안내를 할 수 있어 좋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좀 더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일반 이용자가 업체 제공사별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전자정보 박람회 안내자료에 전공 학과나, 주제분야 별로 업체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간략한 업체 소개 문구가 함께 기재가 되어도 좋을 것 같고요.

Q. 끝으로 전자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 도서관과 이용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EBSCO 전자자료 박람회를 통해서 오히려 업체에게 원하는 개선사항이나, 다음 회에 반영이 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면 보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퀴즈 풀이 방식, 스탬프를 얻는 방식과 더불어, 향후 중간 중간에 이용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면 이용교육 참여를 통한 경품 제공이나 참석자 체크를 통한 이점이 제공된다면 보다 많은 이용자 교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열어나가는 사람들

열번째 만남, 기획홍보팀

기획홍보팀, 꿈을 디자인하는 도서관을 꿈꾼다

제1도서관 3층에는 매년 도서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다양한 도서관 행사를 이용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있다.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학술자료와 더불어 문화를 공유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도서관을 위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무장하고 있는 곳, 여러분의 “좋아요”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곳, 도서관의 기획홍보팀을 만나보자.

1 기획홍보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기획홍보팀은 팀명 그대로 PLANNING과 PR을 총괄하는 곳으로, 도서관 내의 주요업무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며,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도서관 관련 기관과의 협력/교류와 도서관 발전을 위한 후원사업 관리 등도 담당하고 있다. 주제별 인용색인(SCI 등) DB 구축 및 분석서비스 제공 역시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이다.

2 기획홍보팀의 업무 날날이 파헤쳐보자!

도서관 업무 기획 및 추진

도서관에서 매년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관리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새로운 주제나 아이템을 대상으로 한 전시회나 강연회 등을 기획하고 2011년부터 시작한 ‘책읽는 대학’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교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도서관의 통계관리와 통계자료 작성, 통계연보 발간 등 도서관 현황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도서관 이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피드백하여 업무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사서들을 위해서는 도서관 업무 매뉴얼 개발을 통해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 홍보 및 홍보자료 제작

도서관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요업무 및 사업에 대해서 교내·외에 홍보하고 자료를 제작하는 등 PR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한다. 도서관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SNS를 관리하고 새로운 이벤트나 행사가 있을 때 교내외 구성원들에게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세워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내외부 방문자를 위한 맞춤형 도서관 투어 안내와 1년에 3번 발간하는 도서관

소식지를 통한 관련 뉴스 제공 등 신선하고 창의적인 홍보활동으로 우리 도서관 이미지 제고에 항상 힘쓰고 있다.

도서관 발전을 위한 후원사업,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도서관 후원사업은 2006년 12월 도서관 사서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만원의 행복’ 모금운동을 포함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한 지원금 출연 등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부 의 새로운 형태인 재능기부(자원봉사)로도 후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 츠크바대학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사업을 통해 여러 기관과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주제별 인용색인(SCI 등) DB 구축 및 분석서비스 제공

도서관에서는 학문동향 파악 및 정보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동향분석 플랫폼인 SC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대 연구자들의 연구활

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SCI급 논문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도서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연구지원업무를 수행하고자 2010년부터 계속된 서비스이다. 인용DB를 분석하여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리포트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자 본인이 관심학술지를 등록하여 통계분석을 요청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서관 관련 각종 보고서 작성

교내외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에 도서관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도 기

획홍보팀의 업무 중 하나이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소개하고 공식적인 통계정보를 제공하며,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하는 등 도서관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3 올해 기획홍보팀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일들!

2015년에도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사업이 기획·운영된다. 부산대학교 교수진의 재능기부로 시작된 “세상의 모든 시학”이 도서관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학기 3강에 걸쳐 진행된 시학강좌는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2학기 강좌

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리대학 개교 69주년 기념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사진 공모전을 5월에 진행하며, 사진 공모전에서 우수한 작품들을 선별하여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에 있다. 그리고 4월 22일부터 시작하여 6월 30일까지로 현재 진행 중인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은 모집 후 우수추천서로 선정하여 내년도에 효원 감동 나눔 책임기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학기에는 독서낭독회, 2014년도에 선정된 효원 감동 나눔 책임기 전시회 등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단과대학별 도서 대출 현황을 한눈에!

2014 도서관 대출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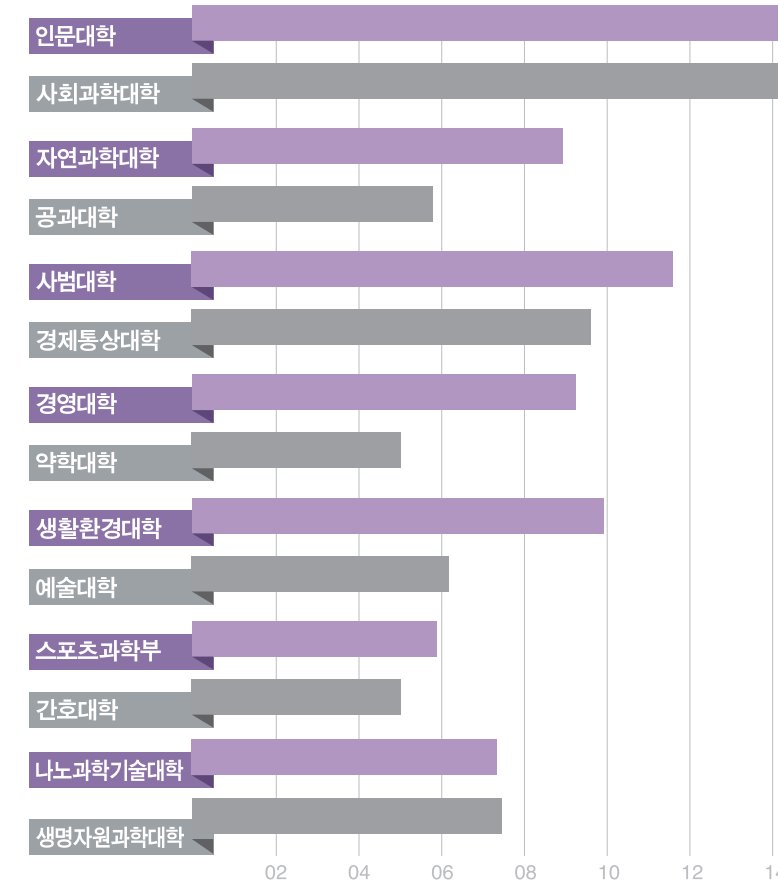
2014년 지난 한 해 동안 부산대학교 학생들은 과연 몇 권의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보았을까?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2014 도서관 대출 통계!

학부생 대출 통계

부산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출 통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재학생 수는 22,072명, 대출 책수는 191,054책으로, 재학생 평균 대출 책수는 8.7책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재학생 평균 대출 책수를 살펴본 결과, 사회과학대학이 14.6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문대학 14.3책, 사범대학 11.6책 순 등으로 나타났다.

구분	전체 재학생수(A)	대출 책수(C)	재학생 평균 대출 책수(C/A)
전체	22,072	191,054	8.7
인문대학	2,036	29,046	14.3
사회과학대학	1,476	21,506	14.6
자연과학대학	2,430	21,812	9.0
공과대학	6,856	39,673	5.8
사범대학	1,491	17,322	11.6
경제통상대학	1,436	13,828	9.6
경영대학	1,290	11,939	9.3
약학대학	276	1,387	5.0
생활환경대학	731	7,273	9.9
예술대학	1,374	8,496	6.2
스포츠과학부	151	904	6.0
간호대학	368	1,863	5.1
나노과학기술대학	621	4,557	7.3
생명자원과학대학	1,536	11,448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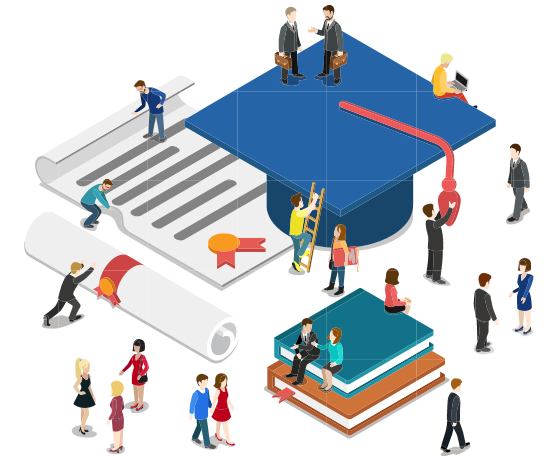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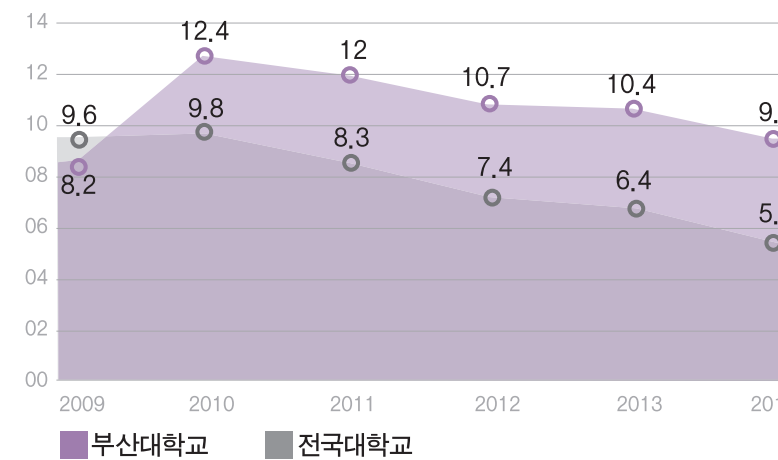
재학생 평균 대출 책수(2014, 대출 책수/전체 재학생수)



재학생들의 도서대출

대학생들의 도서 대출 책수는 해마다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6년간 연도별 재학생 1인당 대출 책수를 조사한 결과, 부산대학교의 경우 2009년 8.2책에서 2010년 12.4책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4년에는 9.7책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학교 역시 2009년에는 9.6책에서 2010년 9.8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5.8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생의 도서 대출 건수가 감소한 것은 전자자료 증가 등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기능 변화와, 최근 대학생들의 대내외 활동,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한 상대적인 독서 감소가 원인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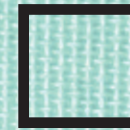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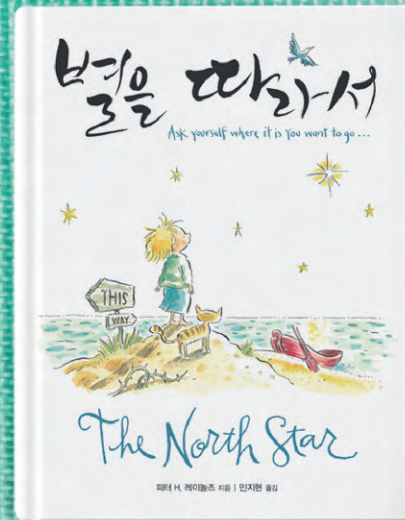
연도별(2009년~2014년) 재학생 1인당 대출 책수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리움, 이라고 일컫기엔 너무나 크고,
기다림, 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넓은 이 보고 싶음.
삶이란 게 견딜 수 없는 것이면서 또한 견뎌내야 하는 거래지만,
이 끝없는 보고 싶음 앞에서는 삶도 무엇도 속수무책일 뿐이다

안도현, 『연어』 중에서



어른을 위한 동화로 널리 알려진 안도현 시인의 『연어』가 지난 4월 영국에서 번역 출간됐다. 1996년 3월 초판이 나온 이후 국내 판매 100만 부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영국을 포함해 독일, 프랑스, 터키, 체코 등 모두 10개국에 번역 출간됐다고 한다.

어른을 위한 동화가 인기 있는 이유. 단순하고, 간결하고, 재미있지만, 사실은 섬세함 속에 참 많은 질문을 내포하고 있어, 어른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여운을 남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오늘은 어른을 위한 동화를 읽으며 잠시 생각의 시간을 가져보자.



엄마 파는 가게 있나요?

이영란 지음 | 김장원 그림 | 시선 | 2014

2014 런던도서전 단독 부스로 참가하여 세계 여성들에게 찬사를 받은 책. 여섯 살 때 엄마를 잃은 저자가 100명의 엄마와 딸을 만나 그들과 웃고 울며 마음을 담아 만든 책이다. 저자는 이 생에서 엄마가 같이 살고 있다는 익숙한 사실이 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먼저 상기시키며 마흔일곱 중년 여성의 목소리로 자신의 삶이 결코 불행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점점 나이가 줄어들면서 엄마 없이 성장하는 주인공의 소소한 일상이 담긴 이야기 13편이 결코 슬프지 않게, 담백하고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다.



뒤뜰에 골칫거리가 산다

황선미 지음 | 봉헌 그림 | 사계절 | 2014

『마당을 나온 암탉』의 저자 황선미의 소설 『뒤뜰에 골칫거리가 산다』. 오랜만에 들른 아버지의 빈집에서 술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버지의 물건들을 보며 떠올린 이야기로, 한 노인과 그 집의 뒤뜰에 모여드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뒤뜰, 벽장, 다락방, 창고 등 오래된 집에 비밀스레 숨어 있는 공간을 통해 삶의 의미와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곱씹어 본다. 이야기 사이사이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림을 함께 담아 읽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멀리가는 향기

정채봉 지음 | 이성표 그림 | 샘터사 | 2012

동화작가 정채봉의 어른을 위한 동화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 간결한 글 안에 깊이 있는 철학을 담고 있는 정채봉의 글과 이성표의 담백하고 시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이 잘 어우러진 책이다. 동화작가 특유의 순수성이 돋보이며 때로는 어린이의 때를 지났지만 많은 시선을 통해 현대인의 은밀한 내면을 날카롭게 파헤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섬세한 시선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해내 우리가 살면서 잃어가는 가치들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하게 한다.



별을 따라서

피터 H. 레이놀즈 지음 | 민지현 옮김 | 세상풍경 | 2015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인 피터 H. 레이놀즈가 어른들을 위해 마술같은 동화를 선사한 『별을 따라서』는 인생이라는 여행에 관한 고무적인 우화이다. 이 책은 여행을 통해 성장하는 호기심 많은 한 소년의 이야기에 피터 H. 레이놀즈 특유의 아름답고 신비한 그림이 더해져 진한 여운을 느끼게 한다. 이 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다. 당신이 이제 막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했든, 삶의 방향을 바꾸어보기로 했든, 아니면 처음 발을 내디뎠든, 이 책은 분명 당신에게 당신만이 들 수 있는 '마음의 울림'을 들려줄 것이다.



원작이 있는 영화, 원작 vs 영화, 당신의 선택은?

많은 영화들이 인기 있는 소설이나 웹툰 등을 바탕으로 제작되곤 하는데요, 활자로 보던 내용을 스크린 영상으로 보면서 원작보다 더 많은 매력을 발산하기도, 또는 원작에 미치지 못하는 깊은 아쉬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원작과 영화 중 더 감동을 안겨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영화는 제1·2도서관 1층 iCOMMONS 내 미디어룸에서 언제든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창문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개요 코미디/드라마 | 114분 | 2014. 6.
감독 플렉스 할그렌
출연 로버트 구스타프슨(알란 킬슨 역), 이와 위를란데(올리 우스 역) 등
내용 스탈린, 김일성, 아인슈타인의 숨겨진 멘토?! 20세기 역사를 들었다 놔다 하는 간큰 할배의 감동과 웃음폭탄!
원작 「창문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제1도서관 2층 (LDM 839.738 J76h한)



사막에서 연어낚시

개요 드라마 | 107분 | 2014. 10.
감독 라세 할스트롬
출연 이완 맥그리거(알프레드 존스 역), 에밀리 블런트(해리엇 역) 등
내용 그분의 취미를 위해 연어 1만마리, 공사비 5천 만파운드? 과연 이들은 사막연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원작 「사막에서 연어낚시」 제1도서관 2층 (LDM 823.92 T677s한)



우드잡

개요 코미디/드라마 | 116분 | 2015. 1.
감독 야구치 시노부
출연 소메타니 쇼타(히라노 유키 역), 나가사와 마사미(이시이나오키 역)
내용 가무사리 마을의 산림관리연수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히라노 유키의 산에 울고 산에 웃는 첩첩산중 마운틴 힐링무비!
원작 「가무사리 숲의 느긋한 나날」 제1도서관 2층 (LDM 813.36 삼845sC한)



두근두근 내 인생

개요 드라마 | 117분 | 2014. 9.
감독 이재용
출연 강동원(대수 역), 송혜교(미라 역) 등
내용 얼굴은 80살, 마음은 16살 소년, 세상에서 가장 늙은 아들과 가장 어린 부모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원작 「두근두근 내 인생」 제1도서관 2층 (LDM 811.36 김62cA)



내가 잠들기 전에

개요 미스터리 | 92분 | 2014. 10.
감독 로완 조페
출연 니콜 키드먼(크리스틴 루카스 역), 콜린 퍼스(벤 루카스 역) 등
내용 매일 아침이면 기억을 잃는 크리스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원작 「내가 잠들기 전에」 제1도서관 2층 (LDM 823.92 W342b한)



더 기버 (기억전달자)

개요 SF/드라마 | 97분 | 2014. 8.
감독 필립 노이스
출연 브렌트 스웨이츠(조너스 역), 메릴 스트립(수석 원로 역) 등
내용 완벽한 세상을 위한 완벽한 비밀, 제거된 '기억'을 가진 단 한사람. 가장 창의적인 SF의 신세계!
원작 「기억 전달자」 제1도서관 2층 (LDM 823.914 L921g한)

그 외 원작이 있는 영화

고령화가족

드라마 | 112분 | 2013.5. | 송해성
원작 「고령화가족」(천명관)
제1도서관 2층 (LDM 811.36 천34ㄱA)

언더 더 스킨

SF | 108분 | 2014.7. | 조나단 글레이저
원작 「언더 더 스킨」(미셸 파버르)
제1도서관 2층 (LDM 823.914 F115u한)

내 손안에 들어온 똑똑한 도서관 도서관 모바일앱(APP) 출시

Play 스토어, APP 스토어에서 부산대도서관을 경험하세요!
편리한 모바일 이용증, 푸시(알림) 서비스와 자료검색, 연구지원 서비스, 자료 및 시설 이용안내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안드로이드 애플

모바일 이용자의 증가와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5월 7일 도서관 모바일앱을 오픈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 OS 사용자는 Play 스토어, 애플 iOS 사용자는 APP스토어에서 '부산대도서관'을 검색하고,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모바일앱, 여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웹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자동 로그인을 지원하여, 매번 로그인하는 번거로움 해소
- 모바일 이용증 번거롭게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앱을 설치하면 모바일 이용증을 바로 사용 할 수 있어요!
- 앱 푸시서비스를 통한 SMS 발송 비용 절감
My Library > 개인정보관리 > 알림 설정에서 알림 방법을 변경하세요. 가급적 APP 푸시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도서관에서는 모바일 환경변화에 맞춰 앞으로도 모바일 앱을 계속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용 중 불편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댓글남기기를 통해 의견을 주세요.
문의 | 도서관 전산지원팀 051-510-1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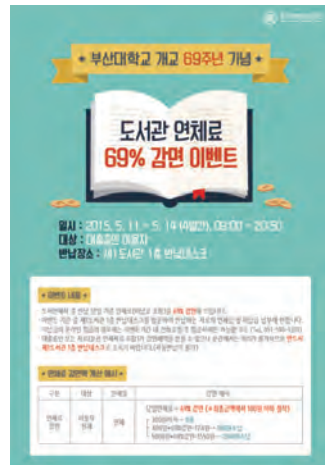
“미국 외교관과의 대화: 이민과 미국교육의 중요성”
Alka Bhatnagar 미국 국무부 자료정보담당관 초청강연



주한미국대사관 아메리칸센터와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미국 외교관과의 대화: 이민과 미국교육의 중요성” 강연이 지난 4월 24일, 제2도서관 1층 오디오리움에서 열렸다. Alka Bhatnagar(알카 바트나가) 미국 국무부 자료정보담당관의 초청강연으로 통역없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이민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서관에서는 미국대사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2도서관 1층 iCOMMONS 내의 Window on America 코너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 아메리칸센터에서 기증받은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개교 69주년 기념
도서관 연체료 69% 감면 이벤트 개최



도서관에서는 부산대학교 개교 69주년을 기념하여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도서관 연체료 69% 감면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이벤트는 도서관 연체료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올바른 도서관문화화를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 5월 기준 연체자수는 1,722명, 미반납 책수는 3,680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실시한 연체료 감면 이벤트는 기간 내 도서관연체자가 제1도서관 1층 반납데스크를 방문하여 연체료를 납부하면, 반납 당일 기준 연체료(미납료 포함)의 69%를 감면(100원 이하 절삭)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서관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장기간 적체된 미반납 자료 문제를 해결하고, 자료의 원활한 유통으로 이용자 불만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 도서관 정보서비스팀 051-510-1301, 1308

책으로 전하는 감동
2015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 공모



내 삶에 영향을 준 좋은 책을 친구, 선후배에게 추천해보는 건 어떨까? 도서관에서는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추천받는다. 1인당 최대 3건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부산대학교 ‘책 읽는 대학’ 홈페이지(<http://reading.pusan.ac.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추천서(A4 1장~3장 분량)를 제출하면 된다. 7월 중 우수추천서 50건을 선정하여 도서상품권(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출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pusan.ac.kr>) 공지사항 참조. 한편,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 프로그램은 2012년에 시작해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해마다 효원인 추천도서 전시회도 함께 열어 책을 통한 감동을 공유하고 있다.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개교 69주년 기념 도서관 사진 공모전 개최
5월의 도서관, 사진찍기 좋은 날



도서관에서는 부산대학교 개교 69주년을 기념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사진 공모전을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5월의 도서관, 사진찍기 좋은 날>이라는 이름의 이번 공모전은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5월의 우리 대학 도서관을 배경으로 한 모든 내용의 사진을 주제로 하고 있다. 작품에 대한 창작성과 독창성, 표현의 적절성, 학습 및 홍보자료로서의 활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작품작 중 우수작 30점을 선정하여 8GB USB를 제공하며, 도서관 사진전에 전시할 예정이다. 제출방법 및 참가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PNUL 69 PAGE

우리 도서관이 예순 아홉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1946 - 2015

올해는 부산대학교도서관이 개관한지 6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은 도서관에서 몇 번째 봄을 맞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봄날, 당신의 꿈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도서관이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